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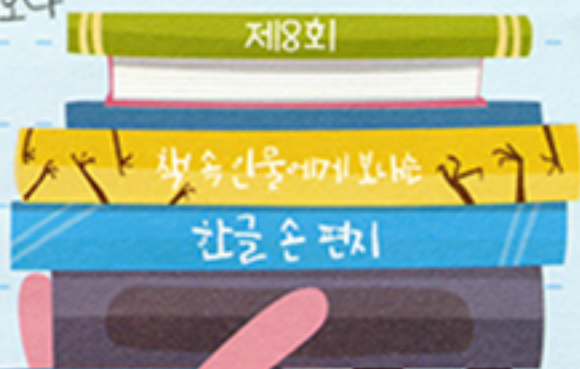
시우형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4학년 정지훈이라고 해요. 형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놀랐죠? 저도 '일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왜 월급을 줄까?' 하는 궁금증에 바빠졌어요. 활명수반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거란 생각에 콩닥콩닥 설레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겨보게 되었어요. 활명수반의 화폐 이름이 미소라니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미소가 쌓일수록 얼굴에도 미소를 짓게 되니 이름이 찡찡궁궁한것 같아요.

형은 직업을 정할 때 정소부로 정했죠? 하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쉽게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했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 하는 탄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4월에 월급명세서에 월급의 60미소가 찍혀졌을 때에도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저도 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떼는 것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가겠죠? 하지만 190미소의 월급 중에서 6주간 150미소를 정기예금에 가입한 결정은 참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예금을 하면 적금보다

돈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요.

시우형, 투자했을 때 선생님 몸무게에 투자해서 22%의 수익을 본 것



축하해요. 형은 그 돈으로 무얼 할 생각이세요? 저라면 사고 싶은 레고를 사고 기쁘고 해보고 싶어요.

형이 실업자가 된 것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학교가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기면서 직업이 사라지다니..... 실업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형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마도 월급을 못 받아서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직업 제안서를 쓰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었는데 새로운 직업을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나중에 저랑 만나서 저에게 투자하는 법, 저축하는 법 등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드디어 2학기 마지막엔 열심히 700미소를 모아서 경매에서 사인볼 받은 것 정말 축하해요. 저도 형처럼 어린이 투자와 저축을 공부하며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여행을 떠나는 생각만 해도 신나는 꿈을 꾸는 중이에요. 6학년 1반 활동수 반의 미소(돈)가 쌓이면 이쯤처럼 미소가 활짝 피어 날 것 같아요. 새우 형,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6-1반에서 배운 것들 잘 활용하길 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워요. 저도 형의 모습을 기억하며 실천해볼게요.

평안센가 미래에서 만나요!

-활동수 반이 되기를 꿈꾸는 4학년 지훈이 올림

